

# 금호타이어, 임금 지급시기 연기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 노조협의 거쳐 27일에서 익월 초로 조정

금호타이어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시점을 일시적으로 뒤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를 거쳐 통상 매월 27일 지급했던 직원급여를 익월 초에 지급하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기업어음(CP) 만기와 공장 운영비 결제시점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금 흐름이 경색되자 급여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29>